

“시사회 관객 반응 극과 극 걱정은 이미 내려놨어요”

‘PMC: 더 벙커’ 오늘 개봉... 배우 하정우

“걱정이라는 단어는 안 쓰려고 해요. 저를 칭찬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마냥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영화에서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길이가 멀기 때문에 점점 부담을 내려놓는 부분이 있죠.”

충무로의 대표적인 ‘민보배’ (민고 보는 배우) 또는 ‘최연소 1억 관객 배우’ 등의 별명으로 불리는 하정우(사진)가 26일 개봉하는 ‘PMC: 더 벙커’ (이하 PMC)로 극장가 겨울 대전에 뛰어 들었다.



‘PMC: 더 벙커’ 하정우

PMC는 1인칭 시점 카메라, 드론 촬영 등을 결합해 마치 게임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화면을 구현해냈다. 여기에 ‘더 테러 라이브’를 연출한 김병우 감독의 속도감 있는 연출 스타일이 결합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속도감과 긴장감을 선사한다.

다만, 시사회에서 배일을 벗은 이후 관객 반응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독특한 화면과 속도감 있는 전개에 호감을 보이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어지러울 정도로 정신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필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하정우 역시 “시사 반응이 모 아니면 도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작은 정발 예측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며칠 전 언론 시사가 끝나고 한강을 걸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머니께 ‘너무 새로운 느낌이 어서 걱정돼요’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그게 걱정해서 될 일이니’라고 했어요. ‘그렇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정우는 2013년 12월 처음 PMC의 시나리오를 접했다. 이후 5년간 시나리오 각색부터 제작 준비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애착이 가고 관객 반응이 더 궁금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형식이 독특하죠. 관객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관객을 당기는 영화가 아니에요. 관객이 마음을 열고 영화에 들어와 주변 타격감 있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에서 하정우는 PMC(Private Military Company) ‘블랙리저드’의 팀장 에이헵 역을 맡았다.

“어느새 완전히 40대가 돼 버렸네요. 일단 관객에 신뢰받는 배우 되고 싶어 결혼도 해야겠고 애도 낳고 싶어요. 이제 저도 급합니다”

다국적 군사기업의 팀장이라는 설정상 북한 의사로 출연하는 이선균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사를 영어로 소화했다.

실제 하정우의 영어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역이었다. 그 때문에 한 달가량 미국에 머무르면서 맹연습을 했다고 한다.

“영어 시나리오를 보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독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모든 문장이 이해됐을 때 한 달 동안 미국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어요. 5월 말에 가서 6월 말에 돌아왔는데 그 한 달 동안 대사는 모두 숙지하고 왔죠.”

PMC는 하정우와 이선균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조연급 배우가 외국인이다. PMC를 촬영하면서 한국도 할리우드처럼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군이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최상위 목표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이 더 크기도 하고요. 오히려 세계에 먹힐 수 있는 영화를 한국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정우는 올 연말 PMC를 선보인 후 내년 여름 공포영화 ‘클로젯’으로 스크린에 돌아올 예정이다. 이후 ‘백두산’, ‘보스턴 1947’, ‘피랍’ 등 차기작 촬영이 이어진다.

여기에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후속작도 예정돼 있으며 ‘롤러코스터’, ‘허삼관’에 이은 본인의 세 번째 연출작 ‘서울타일즈’의 촬영도 계획 중이다.

“계획된 작품만 다 해도 벌써 마흔넷 정도 되죠. 어느새 완전히 40대가 돼 버렸는데 일단 관객에게 신뢰받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발전해야겠죠. 결혼도 빨리 해야겠고요. 애도 한 네다섯 명 낳고 싶어요. 이제 저도 급합니다.”

트와이스, 일본이 좋아하는 가수 15위



아시아 유행 걸그룹 트와이스(사진)가 일본인이 좋아하는 가수 15위에 선정됐다.

일본 오리콘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2만 명을 상대로 설문한 제15회 ‘좋아하는 가수 랭킹’을 24일 공개했다.

1위는 아라시, 2위는 아무로 나미에였으며 노기자카46, 미스터 칠드런, 우타다 히카루가 뒤를 이었다. 2016년 해산한 스마프는 13위에 이름을 올려 여전히 팬덤을 과시했다. 총 50위까지 발표한 이 랭킹에서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트와이스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뮤지션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9위를 차지했으며, 세대별 랭킹에선 10대

들이 좋아하는 뮤지션 6위를 기록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3세대 한류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일본 정규 1집 ‘BDZ’로 타워레코드 ‘K팝 가수 발매 앨범 톱10’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오리콘에서는 ‘연간 앨범 랭킹’ 8위에 올랐다. 싱글앨범 ‘웨이크 미업’으로 TBS방송국 주최 제60회 일본 레코드대상시상식서 우수작품상을 받았다.

트와이스는 오는 31일 일본 최고권위 연말 가요축제 NHK 홍백가합전(紅白歌合戦)에도 2년 연속 출연한다. 내년에는 한국 걸그룹 최초로 일본 돔투어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강호동·광희, 올리브 ‘모두의 주방’ 출연

29일 오후 6시 첫 방송

올리브는 소셜 다이닝을 주제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 ‘모두의 주방’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주방’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먹으며 친해지는 내용을 담는다.

강호동이 진행을 맡았으며 최근 제대한 광희, 배우 이창아, 배우 광동연, 아이즈원 미야와키 사쿠라가 출연한다.

오는 29일 오후 6시 첫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법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양코로 MBC 다크프라임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청소년 콘서트 업치락 50 다크 공감(재)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4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내 사랑 치유기(재)	50 성탄특선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게임의 시작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방학특선 또봇 V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합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GFN 광주영어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공연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Q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교향전문록 남도에 살았리랴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연말특집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솔밭 김재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굴복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치킨 치즈브레드)	17:15 엄마 까투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역유람기 황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꼬마버스 타요
06:00 한국기행(재) <화산섬기행 3부>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이특!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07:00 올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크 - 7요일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우리 가족 거리 출하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섬, 비누아루 3부 지구의 심장 암브림>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국수기행2 3부 뜨거워도 좋아 차가워도 좋아>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크프라임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22:45 극한직업
09:30 윈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올감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1월 20일 壬辰)

<p>子 36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48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60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빈틈이 보이리라. 72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다. 84년생 상대를 배려하다보면 의외로 얻는 바가 많다. 행운의 숫자 : 03, 23</p>	<p>午 42년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과감하게 받아들여도 별 탈이 없다. 66년생 이미 짜여진 구도이니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 78년생 선의로 받아들이고 무방하다. 90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0, 86</p>
<p>丑 37년생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을 거 두렵다. 49년생 상대의 논리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 61년생 탄탄대로의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 73년생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85년생 종국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61</p>	<p>未 43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55년생 현재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 67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매달려야 해결 될 문제다. 79년생 근본적인 타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91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행운의 숫자 : 97, 47</p>
<p>寅 38년생 하나로 통하는 것이 편리하리라. 50년생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62년생 당연시 하여 왔던 것 속에 의외의 맹점이 보일 것이다. 74년생 얼마나 치밀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86년생 극진한 성심으로써 대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3, 17</p>	<p>申 44년생 이익의 창출이 매우 크다. 56년생 멀리 내다보면 서 관계를 설정하라. 68년생 대지 위의 초목은 폭풍우를 맞고 강해지는 법이다. 80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92년생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행운의 숫자 : 65, 69</p>
<p>卯 39년생 열린 마음이 많은 기회를 담보하리라. 51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여야만 원만 하겠다. 63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한다. 75년생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써야 무리가 없다. 87년생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1, 65</p>	<p>酉 45년생 개성을 살린다면 훨씬 더 가치가 빛나리라. 57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69년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 81년생 총 동원해야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다. 93년생 실행 방식에 한계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0, 19</p>
<p>辰 40년생 소신껏 추진해 나간다면 성취하리라. 52년생 간접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4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76년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2, 59</p>	<p>戌 34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46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58년생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중재대환 것을 놓치게 된다. 70년생 앞길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82년생 애매했던 일이 보이나 주의하자. 행운의 숫자 : 94, 49</p>
<p>巳 41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난다. 53년생 체면 차리다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65년생 파격적인 사례가 끝날 것이다. 77년생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라. 89년생 강력한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 : 82, 70</p>	<p>亥 35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47년생 개별적인 고찰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59년생 곧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71년생 뜻밖의 황제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83년생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53, 71</p>